

남양주시, 별내지역 13개 초중고 학부모회 임원진 워크숍 개최

어머니가 존중받을 수 있는 도시로

경기 남양주시(시장 주광덕)는 23일 별내동에 소재한 한 카페에서 별내지역 13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 5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.



주광덕 남양주시장.

이날 워크숍은 △학교별 참석자 소개 △주광덕 시장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교육 토크콘서트 △박영주 휴먼북의 특강('아로마테라피 감정 치유') 순으로 진행됐다.

토크콘서트는 학부모들이 평소 주 시장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하고,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
한 학부모는 "오늘은 남양주시장이라는 직책을 떠나서 인간 주광덕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"라며 "항상 설렘을 안고 내일을 맞이하는 주광덕 시장처럼, 엄마인 나도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변화하는 사람이 되겠다"라고 밝혔다.



주광덕 시장은 “남양주시는 지난 2년간은 빌드업, 앞으로의 2년은 점프업하는 시기이고,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”라며 “교육의 핵심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이기에 남양주시를 ‘어머니가 존중받을 수 있는 도시’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이어, 휴먼북 특강에 초빙된 박영주 테라피스트는 ‘아로마테라피를 통한 감정 치유’를 주제로 강의했다.

학부모들은 직접 모기퇴치용 스프레이와 롤온 등 아로마오일을 체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.



2024 07 23 ()

시는 학부모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, 앞으로 와부·조안, 화도·수동, 호평·평내 등 남은 5개 권역에서 지속적인 교육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.

이상열 기자 sylee@wikitree.co.kr

출처: <https://www.wikitree.co.kr/articles/969664>